

'91 여성계 10대뉴스

91년 여성계는 분단 46년 만에 남북여성 교류를 실현한 것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여성계 연대운동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평화군축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맞아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이 잇따른 한해였다.

올 여성계의 이모저모를 10대 뉴스 형식으로 재조명해 본다.

◇남북한 여성교류

지난 11월25~29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북한에서 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15명이 참석해 분단 뒤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남북여성의 만남이 이뤄졌다. 북한 대표단의 토론회 폐막 하루전 귀환이라는 오점을 남기긴 했지만 남북여성의 서울 만남은 통일을 향한 남북여성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92년 봄 평양에서

후속 모임을 갖기로 합의해 통일을 향한 여성역할 모색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김부남(30)씨 사건을 계

체는 지난 11월25일을 '성폭력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등지에서 성폭력추방행사를 갖기도 했다. 여성계는 성폭력특별법안을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평화군축 연대운동

절프전을 계기로 지난 3월10일 '평화를 갈망하는 어머니모임'(대표 김윤옥)이 발족돼 어머니들이 우리 사회의 군사 및 전쟁문화의

발판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예상 밖으로 저조한 진출을 기록했다. 기초의회의원에 40명, 광역의회에 8명이 당선됨으로써 전체의석의 1%에도 이르지 못해 여성계의 정치대응력 강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 공천할당제 도입 필요성 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정신대 첫 증언

서울에 살고 있는 김학순(67)씨가 국내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8월 자신이 정신대였음

족법에 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혼하는 주부들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이 30여건 제기됐고, 결혼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40~50% 가량을 분할받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가사노동 가치 평가

한국여성민우회가 국내에선 최초로 지난 2월 주부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5.4시간이며,

남북여성 첫만남 통일 새지평

성폭력특별법·평화군축 추진등 연대운동 활발 주부 가사노동 가치평가·재산분할 청구 큰관심

기로 여성계가 연대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편 것은 올해 여성운동의 주요성적으로 꼽힌다.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회, 전북 김부남사건특별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가 중심이 돼 지난 8월20일 성폭력특별법 입법위원회를 구성해 시안 마련 및 공청회, 정치인 초청 간담회 등을 열었다. 이들 4개 단

확산을 막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평화군축운동에 나섰다. 이 모임이 발전돼 6월23일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교조 주축로 '여성평화 한마당'이 열렸고, 9월엔 여성평화제로 이어졌다.

◇지방의회 진출 저조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선거가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향한

을 공개증언하고, 지난 16일엔 일본에서도 공개증언을 통해 일본정부에 진상조사와 배상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대구에 사는 문옥주(67)씨가 김씨에 이어 두 번째로 자신이 정신대를 지냈다고 비공개로 증언했다.

◇재산분할 청구권 신설

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

이를 요리사 파출부 등 전문가 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88만8천원이라고 발표해 주목을 모았다.

◇여행원 분리모집 폐지

노동부는 지난 7월12일 남녀를 구분해 모집하는 9급행정직 공무원 및 제1금융권의 사원모집 채용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폐지시켰다.



지난 11월25~29일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에 북한 여성대표들이 참석해 분단 46년만에 남북 여성교류의 역사적인 장을 열었다. 사진은 통일당기를 서로 이은 채 <우리의 소원>을 부르는 남북한 여성들. <장철규 기자>

이에 따라 올 가을부터 고졸 여성도 대졸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차별 없이 동등하게 채용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고졸 행원 모집인원을 크게 줄여 큰 반발을 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청구

국민은행 노조 부위원장인 이선자(37)씨는 지난 3월6일 국민은행장을 상대로 같은 직급의 남자 행원보다 덜 받은 임금을 지

급해달라고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금융계의 뿌리깊은 남녀차별 관행에 따라 차별을 받아온 여행원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근거해 국내 최초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지난 8월1일부터 탁아독립법으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

행돼 탁아정책을 추진할 틀은 마련됐지만 내용은 탁아문제 해결이 절실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복지차원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 여성노동자회 등에선 법개정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신연숙 기자>